

남미 석유화학산업 재편 가시화!

브라질 Braskem 출범으로 경쟁체제 돌입 ... 아르헨티나가 문제

중남미에서 FTTA(Free Trade Area of Americas) 협정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문제들이 미국과 주변국들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어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미국시장으로의 접근 및 지역무역협정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라틴아메리카 국가간 경제정책이 다르고 환율이 평가절하돼 무역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칠레의 Ricardo Lagos Escobar 대통령도 APLA(Latin American Petrochemical & Chemical Association)에서 관세인하를 논하기 이전에 거시경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틴아메리카의 파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국가는 칠레로, 칠레는 금융구조를 질서화하고 과거 15년간 정치 및 경제적 안정을 달성했다. 또 수출품을 다양화하고 캐나다의 메탄올 생산기업인 Methanex 및 노르웨이의 Norsk Hydro를 유치했는데 Methanex는 2005년 메탄올 34만톤 플랜트를 상업 가동할 예정이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의 경기악화에 별다른 충격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화학제품 매출의 15-20%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수출이 감소했고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천연가스 거래량 타협에 난항을 겪었다.

아직까지 국영석유기업인 ENAP(Empresa Nacional del Petroleo)가 칠레 남부에 설립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ENAP는 HDPE를 생산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 협력 및 제후를 기반으로 합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시장은 Luis Inacio da Silva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Fome Cere(Zero Hunger) 정책이 경제에 새로운 수요기업을 편입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90년에도 대규모 구매기업들이 시장을 자극한 적이 있다.

노동당 출신 대통령의 당선으로 브라질의 석유화학 노동자들이 권력을 부여 받아 국가적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Braskem의 설립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부채절감 및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Petrobrase가 2002년 아르헨티나의 Perez를 인수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개발계획으로 인수를 통해 Perez의 석유 및 가스 보유량을 획득하고 석유화학 자산이 아닌 아르헨티나의 나프타 수입을 통제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Petrobras는 Sao Paulo 및 Rio de Janeiro 생산단지의 소유권을 통합해 Polo do Sudeste(브라질 남동부 지역)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etrobras 및 Perez의 자산합병이 곧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보이나 Petrobras의 아르헨티나 에너지 운송 생산설비의 통제범위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6/16>